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6 파리 피카소미술관

그 이름만으로... 매년 50만명 이상 찾아



파리=정상필 특파원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내가 만약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자가 된다면 교황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피카소(1881~1973)가 남긴 말이다. 피카소는 그의 어머니 당부처럼 장군이나 성직자가 되지 않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오랫동안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다. 피카소의 이름을 단 미술관이 여럿이고, 그의 작품을 내건 전시회는 엄청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이다.

여러 곳의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이 파리 피카소 국립미술관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스페인(말라가)이지만, 20세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 50년이 넘는 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피카소를 자국민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파리 시내 마레(marais) 지구에 있는 피카소미술관은 거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피카소의 힘=현대미술의 ‘거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이름이 피카소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파리 그랑팔레 국립미술관의 ‘피카소와 거장들’ 특별전시회는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8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가는 기록을 세웠다. 야간개장을 실시한 마지막 4일 간 전시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밤 늦은 시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파리 지역들의 모습은 신문 국제면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 전시에서 피카소는 필수 작가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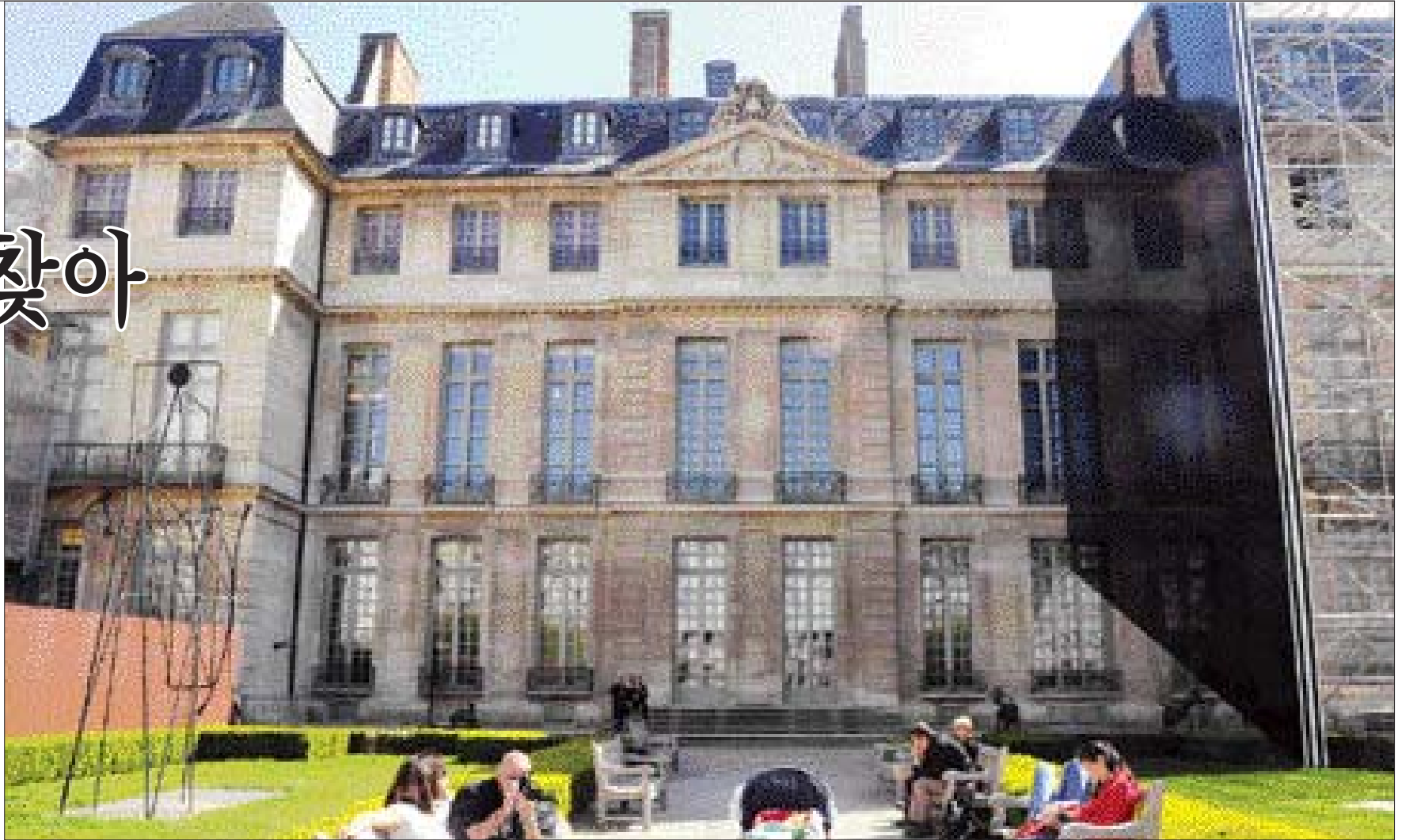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사물의 보이는 형태와 그 이면을 한 데 그려넣는 입체파 기법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이뤄냈으며, 후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페인 프랑코 독재나 독일군의 파리 침공에 대한 저항은 물론, ‘게르니카’(1937년 작)나 ‘한국에서의 학살’(1951년 작) 등 반전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는 등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화 뿐 아니라 조각, 판화, 도기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과 엄청난 작품의 양도 지금의 피카소를 있게 했다. 피카소는 1900년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한 뒤 1904년 가난한 예술가들의 동네인 몽마르트에 정착했다. 그는 1973년 죽을 때까지 프랑스를 떠나지 않았다.

회화서 판화까지 수천여점 피카소 유작 상속세로 받아 대저택에 국립미술관 꾸며

피카소의 모든 것=“나는 세계에서 피카소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한 말일까. 피카소의 말이다. 피카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는 90년이 넘는 거의 생애를 통틀어 나온 대부분의 작품들을 자신의 아틀리에에 보관했다. 그의 사망과 동시에 수많은 대작들은 유산(遺産)이 됐다. 1968년 제정된 프랑스 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상속세를 고인의 작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작품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다.

1979년 피카소의 회화, 대생, 조각, 판화 등 모든 작품이 공식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국립미술관 설립 계획도 급물살을 탔다. 그가 남긴 작품은 회화 203점, 조각 158점, 부조 작품 29점, 도기 88점, 습작 노트 30여권과



프랑스 파리 피카소국립미술관 전경. 17세기 귀족 저택이던 ‘살레 저택’을 리모델링해 1985년부터 피카소미술관으로 개관했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지만 70년 넘게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종 프랑스 화가로 소개되기도 한다.

관화 1천600여점 등이다. 그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세잔, 드가, 마티스, 루소 등 다른 화가의 작품들도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 측은 이후로도 피카소의 작품을 사들이거나 기증받아 소장품 목록을 늘렸다. 1990년에는 피카소의 마지막 연인이던 자클린으로부터 피카소가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작품 47점, 조각 2점, 대생 40여점, 습작 노트 24권 등을 기증받았다.

피카소가 사는 17세기 저택=피카소는 생전에 낡은 건물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망처럼 생가를 미술관으로 개조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프랑스 정부가 눈을 돌린 곳이 마레 지구의 살레 저택이다. 살레 저택은 1656~1659년 폰트네 지역 영주인 피에르 오베르가 지었다. 소금(sel)으로 세금을 징수하던 것을 빚대 부르던 것이 살레 저택 이름의 기원이다. 저택은 18세기 이후 관공서, 학교 등으로 사용되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985년 피카소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루브르와 같은 종합미술관은 비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출신 조각가 로맹미술관보다도 작은 2천여㎡ 규모지만 피카소미술관은 알찬 구성이 있다. 파리 시내에 위치해 있어 미술관 찾아가는 길이 우선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카소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들을 천천히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개 방에서 실시되는 상설 전시 외에도 미술관 측은 연간 2~3차례의 특별전을 열고 있다. 개관 첫 해인 1986년 8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이후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5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중세 귀족 대저택 즐비...파리서 가장 오래된 동네

피카소미술관 자리한 마레지구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은 루브르나 오르세, 조지 폼피두 센터 등 다른 대형 미술관처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지리적으로는 파리 시내의 한 중심에 있지만, 중세 시절을 연상케 하는 좁디좁은 골목을 몇 차례 꺾은 뒤에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피카소미술관이 위치한 마레(marais) 지구가 미술관 만큼이나 흥미로운 동네이기 때문이다. 피카소미술관 외에도 인근에는 보주 광장(Place des Vosges), 빅토르 위고 생가, 유대인 역사미술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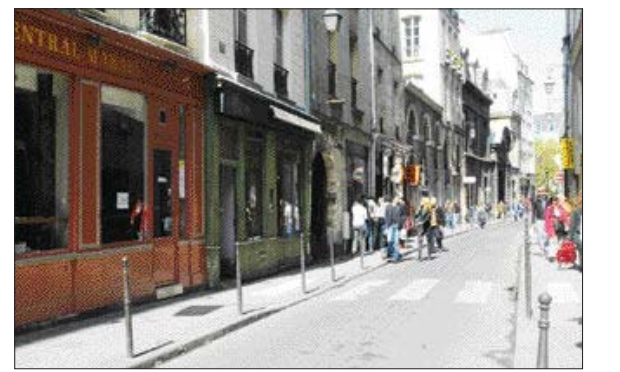
마레 지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다. 파리시청에서 바스티유 광장으로 가는 대로인 생 폴(Saint Paul) 성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17세기 초반 보주 광장이 건설되면서 마레 지구에는 귀족의 대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피카소미술관이 들어선 살레 저택(L'hotel de Sale)도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귀족들의 동네가 형성되자 자연스럽게 대규모 성당도 들어섰다. 1632년 로마의 만신전(광대용)을 모델로 지어져 현재는 개신교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는 마레 사원(Temple du Marais), 1646년 건설된 성 엘리자베트 성당 등이 대표적이다.

왕가가 파리를 떠나 베르사유로 거처를 옮기자 귀족들도 이 동네를 떠났고, 그 자리를 상인들과 장인들이 채웠

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으며, 그 이후로는 예술가, 호모섹슈얼 등이 많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9년에는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에 의해 마레 지구가 파리 최초의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각종 박물관이나 고풍스런 건물, 광장 등이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늘어진 옷 가게와 각종 아이템 샵, 레스토랑, 바 등은 마레 지구의 고풍스러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좁고 때로는 미로처럼 느껴지는 마레 지구의 골목에서 설명 길을 잃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피카소미술관이 위치한 마레 지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로 옛 파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은 젊은 파리지역과 관광객들로 활기를 띤다.



프랑스 파리의 중심 마레 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Kujiphen (큐텐) featuring a heart-shaped graphic with people holding hands, text about love and hope, and product information including '50th Anniversary' and 'Kujiphen Q10'.